

포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CVDIP를 미리 본 참된 파수꾼 에스겔 -복음으로 여는 에스겔- 에스겔 37:10, 요한복음 10:10

정운돈 목사님

- * **겔37:10**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다니 생각이 그들에게 들어가
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 * **요10: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 힘을 얻고 절대불가능이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현장을 위해 생명을 걸고 도전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낙심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영원한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한 분이 제게 불신자시절에는 하나님을 절대 안 믿었지만 지금은 은혜로 장로님까지 되셨다고 했다. 신앙의 성장은 천 단계, 만 단계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신앙생활과 인생도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 가면 다 올라갈 수 있다. 신앙생활의 단계를 나뉘보면 먼저 ① 복음과 그리스도를 깨닫는 단계다.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믿고 구원도 받았지만 주일성수를 잘 안 할 수 있다. ②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간표가 되면 ‘오직’하는 단계가 된다. 내 마음 속에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주일성수는 열심히 하지만 아직 전도할 생각이 없는 분들은 아직 ‘오직’이 되지 않은 분이다. 물론 전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전도하고 싶어도 막상 현장에서 하려고 하면 못 한다. 그래서 훈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현장에는 복음을 받아야 하는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전도하려면 오직 복음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③ 그런데 오직 복음이 되었는데도 성격 더럽고 빠진다. 그 다음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단계다. 제가 초등학생 때는 항상 청소안 하고 도망기는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고 함께 청소했다. 그리고 같이 교회가가고 하면 항상 같이 가더라. 약간만 빛이 되고 손해를 보면 된다. 그런 인물들이 다니엘과 요셉이었다. 윤리, 도덕적으로 모든 삶에서 보여주는 단계다. 그 단계가 완전복음이다. 오직 복음인 사람들인데 보면 사고도 많이 친다. 성장해야 한다. 율법주의로 빠지라는 말이 아니다. 율법은 정확하게 알아야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세상적인 것들이 결국 다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지만 결국 여러 가지로 부딪힌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결국 예상 밖의 문제들이 생긴다. 개인문제, 가정문제, 직장문제도 마찬가지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모든 상황이 결국 복의 근원, 파수꾼이 된다. 그게 에스겔에게 주신 축복이다. 완전복음의 사람인 에스겔과 느헤미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완전복음이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시대가 바뀐다.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항상 그걸 도전해야 한다. 영과 육과 혼이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때까지 보전되어야 한다. 부족하지만 항상 갱신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살리고 도와야 한다. 모든 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도하고 양보해야 한다. 그게 복음

화된 모습이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한다. 바울이 고통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장에 임했기 때문이다. 모든 걸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현장에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란다. 오늘 에스겔서에 생기를 불어 넣는 장면이 나온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기 원하신다고 했다. 왜 여러분이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산업에서 응답을 받아야 할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원래 만드실 때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풍성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다. 부족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파수꾼, 복음의 파수꾼인 에스겔에게 237나라 5천 종족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을 알려 주셨다. 에스겔이 나라와 민족을 빼앗기고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100년, 1000년 후를 두고 메시지를 주신다. 포로생활을 하는데 237과 땅끝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다. 하지만 그게 응답받는 방법이다. 세계화를 해야 한다. 작은 것이어도 5년, 10년을 제대로 준비하면 반드시 쓰임을 받는다. 누구도 할 수 없는 나만의 유일성이 있어야 한다. 유일성은 여러 가지를 융합할 때 나온다. 여러 가지로 융합하고 활용해라. 세 가지를 융합해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유일성이다. 유일성이 있는데 무슨 미래 걱정이 있다.

오늘은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바벨론 침공 시대 3세대 선지자였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다. 1차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고 3차 침공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나이는 25세였고,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던 중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 30세였다. 에스겔은 3세대 램넛 청년선지자였다. 1세대는 이사야, 2세대는 예레미야, 3세대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겔이라고 볼 수 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다 회복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음을 분명히 믿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과 미래에도 응답받는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도 정신을 못 차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할 사명을 받았다. 처음 이스라엘이 끌려갔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를 강조했지만 이후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을 때는 희망과 소망, 미래의 축복을 선포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단지 멸망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과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언약과 꿈과 환상에 대한 CVDIP를 보여주셨다.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언약이었다. 램넛들이 왜 기도해야 할까? 말씀 속에서 CVDIP와 미래 축복이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 그래야 취직하고 사업하고 미래문제가 있어도 속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언약이 없으면 지금 문제 때문에 미래 축복까지 다 놓치게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받을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은 불신앙하고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간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하셨다.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 항상 보여야 한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여유와 풍요가 보여야 한다. 그게 나의 것이 될 때까지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때리고 사탄도 때린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셨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으셨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교회로 끌고 오시는 걸 감사해야 한다. 문제와 어려움을 계속 주시면서 기도하도록 하심에 감사해야 한다. 문제는 그래서 항상 나에게 감사와 축복이다. 그 기도가 다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돌아옴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절대 속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1. 먼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포로생활, 속국생활, 노예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옛 틀에 묶여 있었다. (1) 그들은 자신들이 멸망당한 이유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 결국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마치 나무의 뿌리가 뽑히면 죽고,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면 죽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행복할 수 없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 제가 상담하는 마약환자들은 다 전과 30범에서 60범이다. 그런데 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돌아오신다. 다 돈을 좋아했고 쾌락을 좋아했고 세상을 좋아했고 완악했고 반성할 줄 몰랐지만 완전히 망하고 깨지고 돌아와 지금은 겸손하게 변하셨다. 여러분이 아직 완전히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마약환자보다 더 못한 상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강단메시지를 붙잡고 거둬내고 새로워지는 것이다.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하고 불신중하는 길로 계속 가고 있었다. 강단을 붙잡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목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다른 것 때문에 실패하고 어려운 게 아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친근해지면 모든 문제해결이다. 그게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발판이다. 우리는 자신이 실패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문이 망한 이유를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 내가 되는 일이 없고 불행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 지금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발견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이 재앙을 끊어버리고 복의 근원으로 영적 문제를 후대에게 물려주지 않는 아브라함이 되시기 바란다.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내시고 끝내시기를 바란다. 끝내지 않았다는 증거가 감사하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잘난 척을 하고 '나'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깨달을 때까지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구원의 길을 그리며 불신자상태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증인이 되어야 한다. 구원의 길을 그럴 때 강의한다는 마음으로 정리해라. 혼자 할 때는 은혜가 되지만 제3세계에서 강의하게 되면 완전히 느낌이 다르다.

(2)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절하며 섬기고 있었다. ① 이스라엘 백성은 심지어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까지 만들어 예루살렘에 세워 두었다. 에스겔서 8장 3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인들로 들어가는 부당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다. 우리는 심지어 믿음 안에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을 보며 질투하기도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을 만들었는데, 불신자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럽고 악한 상태가 더 재미있고 편하기 때문이다. 신전지는 거짓말하고 교회를 분열시킨다. 완전 복음이 되지 않으면 살릴 수 없다. 시기, 질투의 영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완전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나. 오직복음, 완전복음으로만 이러한 잘못된 마음과 생각들을 치유받을 수 있다. ② 그들은 성전의 사방 벽에 곤충들과 짐승들의 모든 우상을 그려 놓고 섬기고 있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8장 10절에서 12절에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라고 했다. 이들은 성전의 사면에 우상을 그려 놓고 절하고 섬기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책임을 모두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탓을 한다. 완전히 망하는 영적상태. 복음 밖에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 시작해야 한다. 어릴 때 각인된 것을 바꿔야 한다.

(3) 포로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무사 안일한 삶을 살고 있었다. 상태가 안 좋고 문제가 많은데 '여기가 좋소나'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다. 응답이 있는 사람이 도전할 수 있다. 나중에는 쉬고 싶어도 못 쉴 때가 온다.

2.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통하여 주신 복음과 그리스도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만약 우리들이 복음 전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그 피 값을 우리들의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 에스겔서 3장 20절에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리니와 그의 피 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의인'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한다. 그러나 에스겔서 3장 20절에서 언급된 의인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가 의로운 행위에서 돌이켜 불의를 행하게 되면 더 이상 의인이 아니며 그가 이전에 행한 도덕적으로 의로운

행위로는 더 이상 그를 구원할 수 없다. 그 누구도 평생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에게도 해야 한다. 선으로는 절대 천국을 갈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나의 의로 의인이 되려면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해선 안 된다.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도 천국은 한 가지 죄 때문에 가지 못한다. 이건 신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시기 바란다. 그러면 조금 못해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2)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뼈들은 큰 군대로 변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뼈들이 군대로 변화하는 CVDIP를 보여주셨다. 에스겔 37장 10절에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들이 전도현장에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할 때 마른 뼈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 비밀을 이해할 때 우리나라와 세계 237나라, 그리고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다.

(3)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언약의 말씀은 강단과 성전에서 흘러나온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CVDIP, 즉 언약, 꿈, 비전, 환상, 실현의 현장을 복음의 파수꾼 에스겔에게 미리 보여주셨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3절에는 발목, 4절에는 허리, 5절에는 건너지 못할 강, 8절에는 바다로 변하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다.

(4)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강단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다에 이를 때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게 복음의 역사다. 에스겔 4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베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리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 응답과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 237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성취될 줄 믿는다. 이 모든 응답의 비밀과 키는 위기의 때에 그발 강가에서 깊은 묵상을 한 에스겔의 기도였다. 이 묵상의 시간이 참된 파수꾼들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서밋타임이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깊이 호흡하고 묵상하며 기도해야 한다. 가장 행복할 때 모든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오늘은 7.7.7기도 즉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문 중에서 7망대 기도를 하겠다. 7망대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 오력, 공중권세 결박, CVDIP, 세 가지 뜯이다.

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②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초월과 237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과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답을 내 학업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옵소서. ③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④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⑤ 나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⑥ 나에게 미리 보는 CVDIP 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⑦ 세 가지 뜯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포로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CVDIP를 미리 본 파수꾼 에스겔처럼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더럽고 추한 우리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를 불러주시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제자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시대에 문제가 있더라도 에스겔처럼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에스겔과 같은 파수꾼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